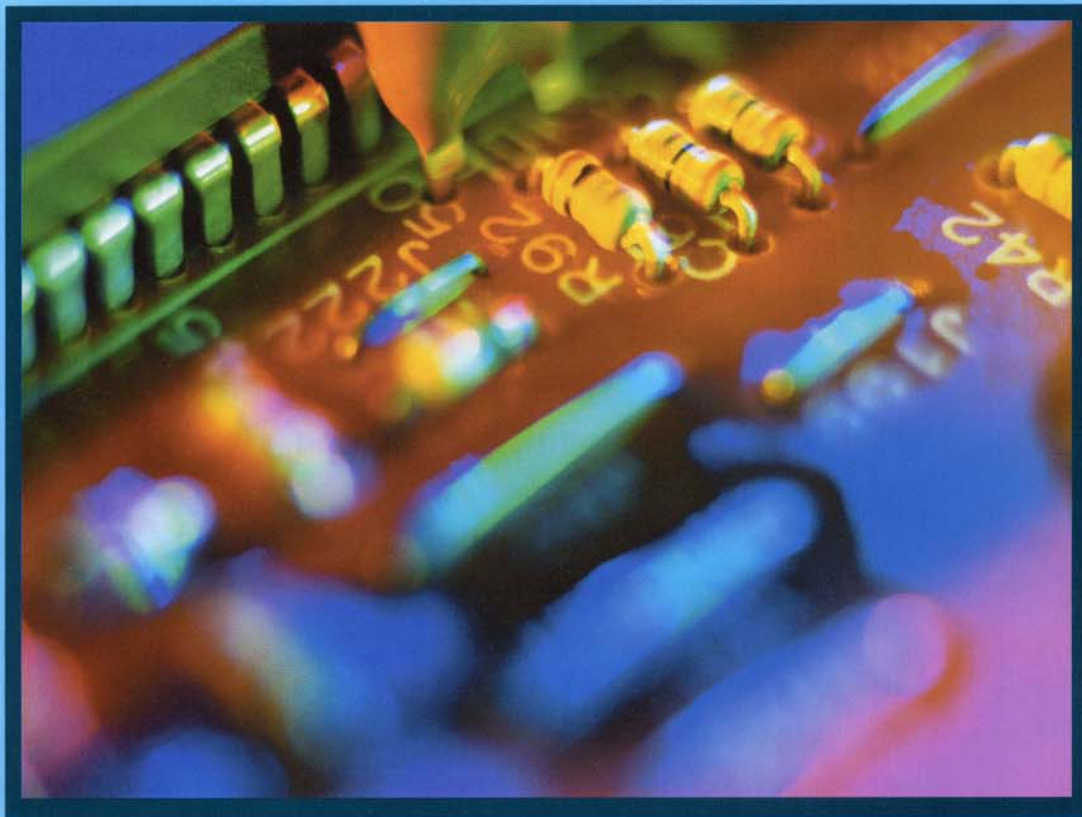


산학리뷰

2003년 10월 / 제14권 제10호 (통권 150호)



2003. **10**

CONTENTS

- 2 • 산학칼럼 / U대회의 成功과 앞으로의 課題 5 • 이달의 쟁점 / 외국투자자 기업의 애로사항에 관한 소고
 7 • 경영 · 기술정보 / 폐기물 가스화 응용 발전기술 11 • 제161차 월례세미나 /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중소기업 육성방향
 14 • 대덕단상 / '2003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특징과 성공요인 16 • 짧은 상식, 긴 여운 / 유비쿼터스 세상
 18 • 만나봅시다 / 김영주 前 계명문화대학 교수 21 • 연구원소식 22 • 회원동정 26 • 신착도서목록 27 • 연구원 소개 및 회원가입 안내





U대회의 成功과 앞으로의 課題

노희찬 |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U대회 결산

세계 지성들의 축제인 2003년 대구 하계 U대회가 지난 8월 21일부터 31일까지 11일간 총 174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10개 정식종목과 3개 선택종목으로 치루어진 이번 대구 하계 U대회에서 한국은 금메달 26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15개로 총 52개의 메달을 획득해 중국, 러시아에 이어 종합 3위를 차지하였다. 홈 그라운드인 이 점도 있었지만 선택종목인 양궁과 태권도에서 무더기 메달이 쏟아졌고, 비인기종목인 체조에서 양태영 선수가 4관왕을 차지한 것이 우리 나라가 종합 3위의 성적을 거두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번 대회는 대회 시작전부터 우여곡절이 많았다. 대회 관계자 및 지역민들은 대회 직전 잇달아 터진 대형사고로 그간 쌓아둔 도시 이미지가 크게 실추된 상태에서 막바지 대회 준비를 해야했고, 개막을 며칠 앞두고는 북한의 갑작스런 불참 선언으로 대회 의미가 반감될 것을 우려하기도 하였다. 대회 기간 중에는 남측 우익단체와 북측 기자단간의 충돌, 종교인들의 시위행위, 김정일 현수막 사건 등 여러 가지 돌발 사고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U대회 성과

하계 U대회는 기존의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대구의 이미지를 진취적이고 개방적인 이미지로 변모시켰다. 또한 여러 면에서 대구를 거듭나게 하는 전환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U대회는 「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로 분노와 자괴감에 빠져있던 대구 시민들에게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특히 시민 서포터즈와 자원봉사자들은 이번 대회를 성공으로 이끄는 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 구·군 자치단체별로 구성된 102개 팀 2만 5천여 명의 서포터즈는 자발적으로 행사에 참여하였고, 아무런 보수 없이 굳은 일도 마다 않고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에서 우리 지역민들의 저력을 느낄 수 있었다.

둘째, 이번 U대회는 대구·경북지역이 전 세계에 선보인 첫 대규모 국제행사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행사였다. 대구 하계 U대회는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에 이어 향후 10년

이번 U대회가 지역경제의 회생과 우리 대구시의 글로벌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치밀하게 『포스트 대구 U대회』 전략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해 나가야 한다. 다행히도 대구시는 포스트 U대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일반시민 포함, 경제·사회·문화·스포츠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업그레이드 대구 추진기획단'을 만든다는 계획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인 것으로 판단된다.

내에 우리 나라에서 열리는 유일한 대규모 국제행사였다. 또한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통해 얻은 국가 브랜드 가치를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었고, 대구로서는 최초로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개최하는 국제행사란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다.

셋째, 북한 선수단의 참여로 민족화해와 통일의 기운을 북돋운 것도 큰 성과이다. 북한 선수단의 참여로 금번 U대회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었고, U대회의 성공에도 큰 힘이 되었다. 또한 부산 아시안게임과 같이 이번에도 미너 응원단이 경기장마다 관중을 몰고 다니는 역할을 하였다.

넷째, 금번 U대회는 다른 국제대회에 비해 소규모의 사업비가 투자되었고, 매우 경제적으로 추진된 대회였다. 대구 하계 U대회의 전체 예산은 2천3백억원으로 부산 아시안게임의 1조3천억원에 비해서는 약 20% 수준에 불과하였다. 반면 한국개발연구원이 대구시의 의뢰를 받아 「대구U대회의 국가·지역적 발전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제분야에서만 총 2,802억원의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적으로 대회를 운영하고 일부 사업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면서 직접적인 대회 운영 수익금도 약 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포스트 U대회 과제

이제 행사가 끝난 지 두 달이 갓 지났다. 그런데 벌써

대구 U대회가 잊혀지고 있는 것 같다. 전 국민을 감동의 물결에 휩싸이게 하였던 월드컵도 포스트 월드컵에 대한 관심과 투자에 비해서는 그 효과가 미미하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대구 하계 U대회도 단지 일회성 행사로 끝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번 U대회가 지역경제의 회생과 우리 대구시의 글로벌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치밀하게 『포스트 대구 U대회』 전략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해 나가야 한다. 다행히도 대구시는 포스트 U대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일반시민 포함, 경제·사회·문화·스포츠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업그레이드 대구 추진기획단'을 만든다는 계획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인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국제 행사를 치른 자력을 바탕으로 대구 U대회 이후의 국제 대회를 계획하여야 한다. 국제박람회 유치 등 전시 컨벤션산업의 활성화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대구시의 포스트 U대회 사업계획에 따르면 2014년 아시안 게임과 2020년 세계 박람회를 대구에 유치키로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행사는 시기상 너무 먼 미래의 일로 동 행사의 유치 전에도 계속 소규모 행사를 유치하여 대구가 열린 도시라는 것을 세계에 알려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 차원의 국제 교류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 방안을 연구하여야 한다. 이번 U대회를 통해 대구가 전 세계에 크게



홍보된 만큼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U대회 기간 중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다국적기업 CEO를 중심으로 지역 투자를 적극 권장해 볼 필요가 있다.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투자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철폐하고 외국인학교 설립, 특 1급 호텔 건립 등 편의 시설도 확충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취약한 산업구조를 첨단산업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경제의 취약한 부문인 디자인과 브랜드 개발을 위해 지역 디자인센터도 조속히 건립하여 대구·경북 중소기업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대구국제공항의 노선도 확대해야 할 것이다. 현재 대구국제공항의 국제노선은 정기 전세기를 포함하여 겨우 7개 노선에 불과하고, 이나마 5개 노선이 중국에 편중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대회를 통해 대구가 내륙도시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명실공히 국제도시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한 만큼, 대구국제공항 국제노선을 중국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본, 그리고 베트남,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각국간의 노선확충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셋째, 기존 경기장의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

다. 특히 월드컵 경기장 주변은 현재의 시설물로는 활용도가 그리 높지 않은 만큼 대규모 아파트단지 개발 및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이다. 아울러 골프연습장과 골프장 등 여러 레포츠 시설들도 함께 건립해 레저공원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세계 육상선수권 등 종목별 국제 스포츠 행사를 유치하고 해외 자매도시간 축구클럽 대항전을 추진하는 것도 경기장 활용에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문화 분야의 경우, 지역 섬유산업과 문화를 접목한 섬유축제를 개최할 필요가 있고, 대구 오페라하우스를 활용하여 오페라축제를 매년 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U대회 성공에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한 시민 서포터즈의 참여 역량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이들을 한데 묶는 모임체를 결성하는 것도 향후 국제행사의 유치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하계 U대회는 지역민들로 하여금 자신감을 회복하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심어주었다. 이제 대구는 과거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어버리고 성숙된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이번 대구 하계 U대회가 대구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폐기물 가스화 응용 발전기술



외국투자자 기업의 애로사항에 관한 소고

김종성 | 발저스한국코팅 대표

발저스한국코팅은 유럽의 소국인 리히텐슈타인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의 국내 법인으로 1996년 설립되어 현재는 경산과 평택에 공장을 두고 있다. 발저스는 PVD(물리증착법)코팅을 최초로 개발하여 현재 전세계에서 5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할 정도로 이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1997년부터 국내영업을 시작하여 매년 100% 이상의 매출성장을 이루어 올해는 110억 매출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발저스한국코팅은 일반적으로 외국기업이 50대 50 정도의 합작비율을 가지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90% 외국자본으로 설립된 외투기업이다. 그만큼 발저스한국코팅은 외투기업들의 일반적인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외투기업이 한국에 투자하면서 겪게 되는 실제적인 어려움을 몇 가지로 나눠 요약해 보고자 한다.

발저스코팅은 지난 7년 동안 외투기업으로서의 세제 혜택 등의 상대적 이점도 있었지만, 경영여건과 인사 관리적인 측면에서 많은 애로점이 있었다.

발저스한국코팅은 종업원 100명 정도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현재까지 노사분규와 같은 문제는 전혀 없었으나 유럽과의 언어와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한국에 맞는 고유한

기업문화를 형성함에 있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다. 특히 본사와의 가교 역할을 하는 한국인 관리자들은 업무상의 사고와 관점의 차이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른 외투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발저스와 같은 소규모 외투기업의 가장 힘든 점은 외국어능력을 갖춘 인력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사업영역 확장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수시로 채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직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영어도 잘하는 사람을 구하기란 아주 힘들고 또한 요구하는 급여 수준도 아주 높다. 그렇다고 한 가지만 갖춘 사람은 업무에 여러 장애가 발생하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영어능력과 직무기술 중 어느 것을 더 중시할 것인가는 항상 당면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서 국가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여건의 측면에서 국내 환경관련 규제는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다. 세계 각국에서 인정받은 환경친화적인 생산공정이 우리 나라의 환경규정에는 어긋난 것이다. 오염물질 배출기준 등 국내 환경규제 기준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다기보다는 번거로운 행정절차나 행정당국의 잦은 단속 등 지나친 행정규제로 인해 많은 애로점을 겪었다.



그리고 한국기업의 접대문화와 어음 등의 결제방식 또한 외국기업의 경영방침으로서는 수용하기 힘든 경영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외투기업의 성장과 확충을 위해서는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 보다는 경영환경 개선과 유연한 노동시장구현, 노사관계 안정이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외투기업 경영자들은 한국의 노조간부들이 글로벌스탠더드에 대해 많은 이해를 가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외국투자자의 입장에서 한국도 전세계적인 투자처 중 하나일 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가급적 내국인에 준하는 행정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기업의 접대문화와 어음 등의 결제방식 또한 외국기업의 경영방침으로서는 수용하기 힘든 경영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외투기업의 성장과 확충을 위해서는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 보다는 경영환경 개선과 유연한 노동시장구현, 노사관계 안정이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적 측면에서 외국인이 한국에서 상주하고자 할 경우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는 바로 자녀교육이라고 한다. 국내 외국인들을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이 미비하여 자녀교육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방에서는 거의 자녀교육은 상상할 수도 없으며 심지어 서울에서도 해당 학교의 자리가 비어야만 들어갈 수 있어 한국 근무에 큰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다.

최근 보도를 통해 많이 알려졌지만 불안정한 노사문제로 인해 한국에서의 사업철수를 고려하는 외투기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외투기업이 한국에 투자하는 이유는 한국시장의 구매력을 높이 평가하고 신흥시장인 중국 등의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진기지로서의 입지와 제반여건의 매력도 때문이지만 불안정한 노사관계와 임금상승 등으로 인한 경영여건 악화로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싱가포르, 홍콩, 대만보다도 낮다고 한다.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의 경쟁국과 비교해보면 경영여건, 노사문제를 포함한 근로자 문제에 있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노사문제를 포함한 근로자 문제측면에서는 크게 구인과 노사관리로 나눌 수 있다. KOTRA가 내놓은 '2003년 외투기업 노사분규 현황과 외국인 CEO 의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분규는 지난 28일 현재 27건으로 국내 전체 발생건수의 9.8%를 차지했다. 또 일부 외투기업은 노사분규의 직·간접적 영향으로 해마다 10%대의 가파른 임금상상이 지속되면서 한국 사업장의 경영여건이 악화일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조의 되풀이되는 '과도한 요구'로 한국에서의 사업의욕을 상실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 사태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주변의 많은 외투기업 경영자들은 한국의 노조간부들이 글로벌스탠더드에 대해 많은 이해를 가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외국투자자의 입장에서 한국도 전세계적인 투자처 중 하나일 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가급적 내국인에 준하는 행정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면 외국인 투자자의 비자연장 등의 조치는 하루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폐기물 가스화 용융 발전기술



신희덕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전문연구위원

1. 기술의 개요

근래 폐기물매립장의 용량부족과 다이옥신과 같은 유독가스 문제를 배경으로 한 소각재 용융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폐기물의 소각처리와 소각재의 용융을 일체화한 '가스화용융로'가 주목을 모으고 있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실용화되고 있다.

동 기술은 폐기물 자체가 보유한 열에너지로 폐기물을 가스화 용융연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층 고 효율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 또한 소각재의 용융과 동시에 고온 연소함으로 다이옥신의 발생을 저농도로 억제시키는 특성도 갖고 있다. 또한 폐기물을 용융함으로써 소각재를 감용화시킬 수 있고, 폐기물처분장의 부족문제도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효이용이 가능한 슬래그도 생성하게 된다.

□ 폐기물가스화 용융발전 방식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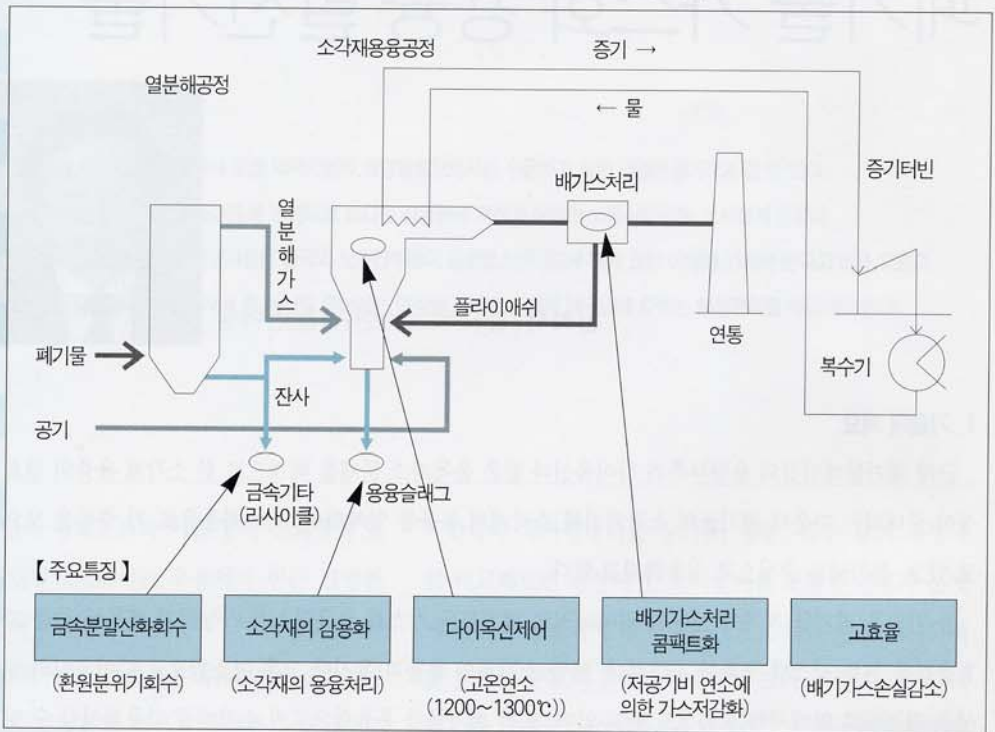
이 용융형의 폐기물발전기술은 열분해 프로세스의 차이에 따라 직접형 열분해 용융방식, 직결형 열분해 용융방식(유동상 및 로터리 킬른식), 분리형 소각재 용융방식으로 대별된다.

직접형 열분해 용융방식은 폐기물 건조 → 열분해공정과 연소 → 용융의 3공정을 철강업에서 고로의 원리를 응용한 것으로, 폐기물을 건조 → 용융 공정으로 나누어 처리한다. 이 때 열분해가스를 발생시켜 연소용융로에서 소각재를 용융시킨다.

□ 기술의 특징

'가스화용융로'는 폐기물이 지닌 자체 열로 소각재를 용융하기 때문에 중진의 폐기물발전에 비해서 발전효율이 낮은 경향이 있으나, '발전+분리형 소각재 용융'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에너지효율은 높은 셈이다. 또한 고온에서 가스를 연소시키기 때문에 다이옥신 발생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저공비연소(低空氣比燃燒)로 가스손실을 저감시킬 수 있다. 또한 열분해를 할 때 부식성분을 분리하여 부식 환경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림 1〉 폐기물 가스화 용융발전 기술의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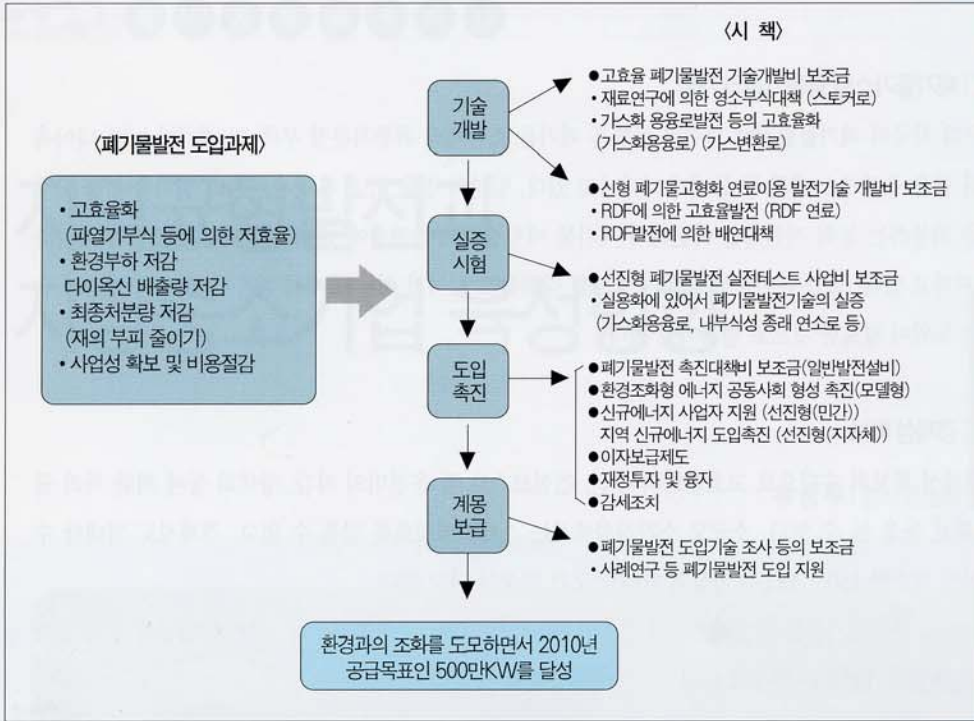
2.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 외국의 개발 현황

○ 일본

- 일본은 폐기물처리법에 의거, 일반폐기물의 처리와 산업폐기물처리가 별도로 실시되고 있고, 일반 폐기물에 의한 가스변환 기술이 곧바로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상업화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산업계가 자체의 산업폐기물처리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일반폐기물처리 수탁을 신규사업으로 개척할 가능성도 있다.
- 일본에는 1,900개의 폐기물소각 플랜트가 전국에 산재되어 있으나, 발전설비를 갖춘 곳은 10%인 190개소(1999년 말 현재)뿐이다. 그러나 이들 시설은 가동률이 80%이하(1998년)로 나타나 있다. 그것은 폐기물발전시설이 주로 대규모의 연속운전시스템을 건설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1999년 말 현재 총폐기물발전용량은 일반폐기물이 84만5천kW이고, 산업폐기물이 13만6천kW로 집계되어 있다. 이 시설은 계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 NEDO에서는 '가스 용융화'에 관하여 단순한 '폐기물소각+소각재 용융'이 아닌 고효율의 폐기물발전기술로 고도화하기 위한 기술개발로 1998년부터 약 3년 간 복수방식(시스템)에 대하여, 고효율발전 및 환경부하 저감을 위한 요소 기술개발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림 2〉 일본 폐기물발전 도입에 관련된 과제와 시책



○ 유럽

- 유럽에서는 소각재의 용융고화를 목적으로 한 가스용융로 뿐만 아니라 폐기물의 가스화에 관한 기술개발이 성행하고 있다.
- 가스화기술은 500℃ 전후의 비교적 저온의 열분해(pyrolysis)를 위주로 한 제1단 가스화와 후류(後流)의 산소공급으로 고온 분위기(1500℃ 전후) 하에 제2단 가스화를 조합한 것이다. 생성된 가스는 정제하여 연료가스화하여 가스엔진 발전, 가스터빈복합 발전, 연료전지 발전 등에 이용함과 동시에 화학원료로도 쓰일 전망이다.
- 폐기물가스변환기술은 독일의 노엘사(PREUSSAG NOELL AG)와 PKA사(PKA Umwelttechnik GmbCo KG), 스위스의 서모셀렉트사(Thermoselect Engineering)가 파일럿플랜트를 건설하여 시험가동을 하였다.

3. 폐기물발전의 과제와 전망

□ 발전의 고효율화

현재로서 폐기물발전 플랜트의 발전효율은 화석연료를 주체로 한 화력발전 플랜트의 약 40%에 비하면 대단히 낮다. 발전효율 향상은 발전코스트의 저감, 채산성 향상을 가져오고 폐기물발전 규모 확대에 효과적이다. 또한 잠재적 발전출력이 증대하고, 폐열의 유효이용 관점에서도 중요하다.

□ 폐기물가스화 용융기술의 개발

근래 각국의 폐기물발전에 관련한 상황은 폐기물 소각재의 최종처분장 부족 및 배기가스 중 다이옥신과 같은 유해가스 대책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소각재 용융설비의 설치를 위한 교부금을 지불하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폐기물 매립장의 부족현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소각재 감량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다이옥신 농도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서 이들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가스화 용융로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경제성 확보

경제성 확보의 수단으로 고효율화의 추진, 건설코스트 및 운전비의 저감, 광역화 등에 의한 처리 규모 확보 등을 들 수 있다. 소규모 소각시설에서는 스케일메리트를 얻을 수 없고, 경제성도 기대할 수 없어서 최소한 150~200t/d 이상의 처리 규모가 기준이 되고 있다.

그리고 산업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혼소함으로써 산업폐기물처리비용의 저감, 발열량의 향상 등으로 경제성이 개선되는 경우도 있다.

4. 맺음말

폐기물가스화 발전은 환경오염방지와 폐기물 매립지의 연명화 외에도 다이옥신과 같은 유해가스를 억제하는 데 매우 중요한 방법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선진권 특히 유럽과 일본에서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가동되고 있는 곳이 많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아직 폐기물 소각 수준에 머물러 있고 아직 발전(發電)에는 접근하지 못한 상태이다.

본 시스템의 향후 개선사항은 폐기물 종류에 따라 다르나, 대체로 연소효율이 낮고 염소가스 등의 발생으로 금속의 부식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문제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일반폐기물과 산업폐기물을 혼소함으로써 이들 문제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5. 참고문헌

- (1) www.enecho.meti.go.jp/english/energy/new_energy/waste.html - 8k
- (2) Koji Arita and Sunao Nakamura: New Technologies Harmonized with Global Environment, NKK TECHNICAL REVIEW No.88, 2003, 16-24
- (3) オム社, 環境産業技術入門, 1998, 東京
- (4) 永野智史, 釜野博臣 等: ごみのガス化溶融システムの開発, クリモト技報, No. 41, 1999.



SEMINAR

제 161 차 월 레 세 미 나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중소기업 육성방향



유창무 | 중소기업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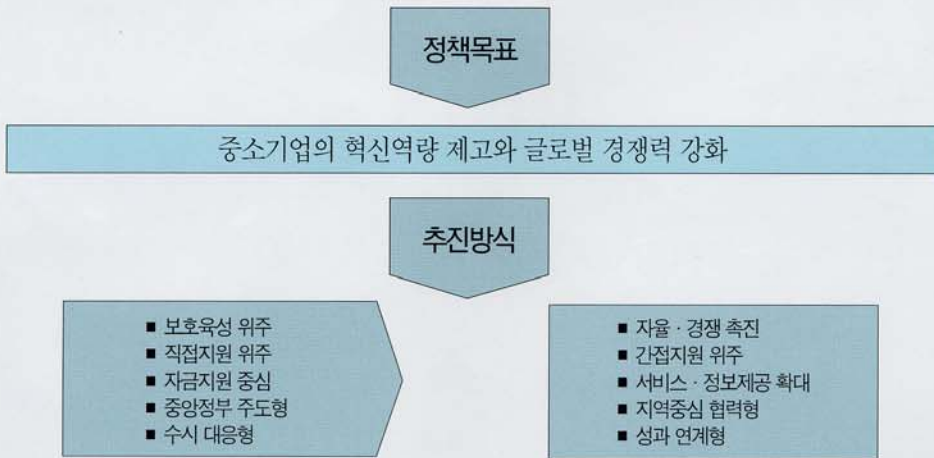
편집자 주 : 2003년 9월 26일(금) 광주 영주체육관에서 개최된 본원 「제161차 월례세미나」의 발표내용을 요약·정리하였다.

1. 중소기업 현황 및 최근 동향

중소기업 현황을 설명드리자면, 중소기업은 약 290만개로서 전체 사업체 수의 99.8%, 고용의 85.6%를 차지하는 등 우리 경제의 중심축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은 2002년에 비해 둔화된 반면, 부도법인 수는 증가(8대도시 기준)하고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 참여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방향

참여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설명드리면, 1990년대 후반 중소기업청 개청 이후 기술, 정보화, 수출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왔습니다만, 중소기업정책의 지원 대상별 차별화 정책 미흡과 지원방식 비효율로 인해 중소기업 경쟁력은 기대에 미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수준은 주요 선진국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중소기업 정책목표와 추진방식을 환경변화에 맞게 다음과 같이 전환하고자 합니다.



3. 참여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시책

참여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시책은 다음과 같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추진

- 중소기업 작업환경 개선 및 인식 개선을 통한 인력유입 촉진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2003년 8월 30일 국회의결)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

나. 정책자금 조달여건 개선 및 지원체제 개편

- 중소기업의 안정적 자금활용 여건 조성
- 신용보증 및 신용거래의 안정성 제고

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강화

SEMINAR

- 중소기업 기술개발 자금 지원 확대

- 수요자와 연계한 신기술개발 적극 지원

라.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및 내수기반 확충

- 내수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적극 추진

- 다양한 해외마케팅 활동 전개로 신규 수출시장 개척

마. 벤처기업의 지속적 육성 및 M&A 활성화

- 벤처기업의 양적 성장보다 질적 고도화를 추진

- 벤처캐피탈 선진화 도모

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

-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

- 소상공인 지원자금 집행권 및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권을 지자체로 이관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자체의 밀착지원 유도

사.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한 보호제도 개편

- 고유업종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시장경쟁적으로 개편


- 지정계열화 제도는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생산협력체제로 전환

아. 지원시책 일몰제 및 상시평가체제 구축

- 신규시책 수립 시 '일몰제(Sunset Rule)' 및 '지원예시제' 도입

- 지원시책에 대한 상시적 평가·정비시스템 구축

4. 맺음말

앞으로 우리 나라가 동북아경제 중심과 2만불시대 조기도약을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투자확대',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현재 전체 실업률보다 배 이상 높은 청년실업률(7.5%, 약39만명)을 낮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경쟁자이자 기회의 나라, 중국이 빠른 속도로 부상하고 있어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넓은 중국시장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R&D 투자 확대를 통한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고 이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의 경영환경 변화는 노사관계의 안정없이는 기업의 발전도 경제성장도 기대할 수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사와의 대화를 통한 인간적 신뢰관계 형성, 투명한 경영 등 선진화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중소기업간 관계가 상생의 협력관계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기업CEO 및 노조가 하도급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청도 여러분의 경영환경 개선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3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특징과 성공요인



김성경 |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사무차장

지난 8월 13일 시작한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관람객 170만 명을 넘어서는 흥행 속에 10월 23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어린이, 청소년, 여성,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여 세대간의 벽을 허물고 화합하게 한 것은 프로그램의 다양성 속에서 찾아야만 할 것이다.

또한 지역적으로도 경북, 대구뿐만 아니라 울산, 부산 등 영남지역과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와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까지 전 국민이 관람한 지역 간의 문화소통을 가능하게 한 것도 이번 엑스포의 주제인 천마의 꿈이 내생하고 있는 지역화와 세계화를 통합하는 글로컬리제이션(Glocalization)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엑스포의 특징

많은 관람객이 함께 즐기고 감동을 느낀 이번 엑스포는 대박을 터뜨린 성공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행사의 특징을 간략히 정리하여 보면, 첫째 재미있고 감동적인 행사내용이다. 인터넷을 통한 행사 아이템의 공모, 고객선호도 조사, 고객평가회의 등 기획단계에서부터 최종제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을 참여시켜 더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였다. 특히 체험적 즐거움이 가득한 세계신화전과 세계캐릭터·애니메이션전, 천 년 전 신라로의 여행 ‘난장트기’ 등 교육적·예술적 요소와 함께 대중적·오락적 요소를 가미하였으며, 참여형 관람이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둘째, 편안하고 즐거운 관람 환경의 조성이다. 그늘막과 벤치 등 휴식시설을 대폭 늘렸으며, 음악에 맞춰 춤추는 분수, 꽃향기 가득한 터널식 화단 등 조경시설의 획기적인 확충으로 색다른 볼거리를 마련하였다. 어린이놀이방, 애완견보관소, 건강진료실, 휠체어대여소 등 관람객들의 기호와 욕구에 맞는 ‘맞춤서비스’의 확대로 즐거움과 편안함이 함께 하는 엑스포를 만들었다.

셋째, 경주시까지 행사의 대폭적인 확대입니다. 시가지 행사에 예산을 증액 지원하고, 행사를 확대하여 행사장의 경계를 허물고, 머물고 싶은 축제가 되도록 하였다. 엑스포 관

람과 함께 경주지역의 역사, 문화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패키지 관광상품을 발굴하였다.

넷째, 문화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 300석 규모의 최첨단 영상관 신축, 컴퓨터 게임인 '천년의 신화Ⅱ' 개발, 야외조각공원 조성, 조정시설의 대폭적인 확대 등 문화 인프라 구축이 가능한 아이টে에 집중 투자하였다.

엑스포의 성공요인


이번 엑스포를 찾은 관람객들은 행사내용이 다양하다, 불만하다, 재미있다는 반응을 보였음은 물론 이것이 구전으로 전해져 평일에는 학생들이, 휴일과 공휴일에는 가족단위의 관람객이 줄을 이었다. 하루만이라도 문화의 이야기로 꽃을 피우며 즐거움과 감동을 느끼도록 하고, 문화를 알고 이해하도록 하여 건전한 놀이문화 보급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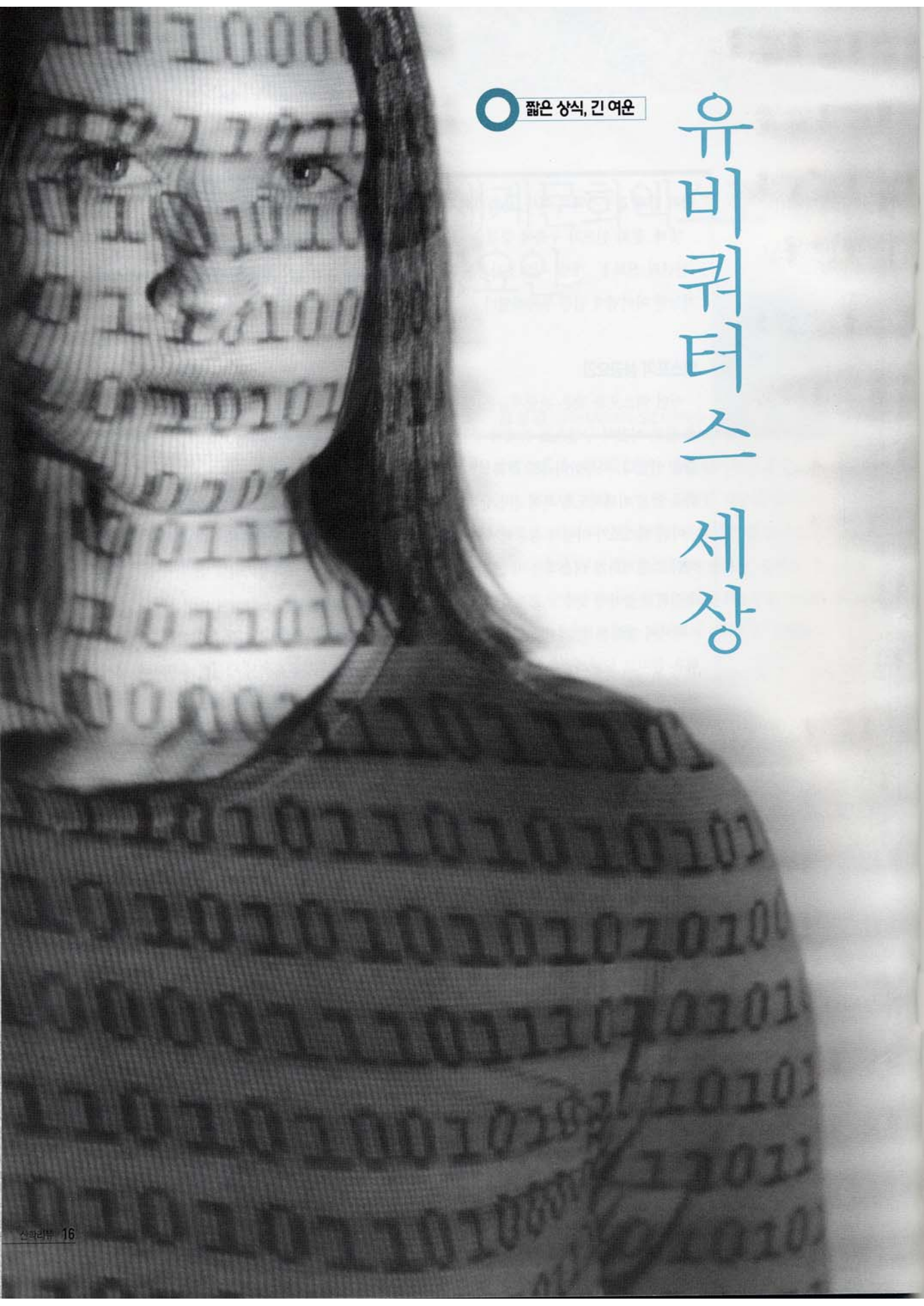
이번 엑스포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두 차례의 행사경험에서 나타난 현상들을 분석하고 철저하게 대응책을 세운 것에 있다. 과거는 현재의 산 교육장이라고 했다. 문화상품을 고객의 눈높이에 맞추고 고객의 불만과 요구를 이번 행사에 과감히 도입하여 반영하였다.

행사에 참여한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이번 행사는 꼭 성공시켜야 한다는 목표아래 토의하고 힘을 합치고 노력하였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냉철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하였다. 모든 사람들의 땀과 노력의 결실이었다.

행정적인 지원도 성공에 큰 보탬이 되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관람객을 확보하고 엑스포를 홍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경주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분위기 조성도 빼놓을 수 없다. 시민단체가 힘을 합하여 엑스포의 홍보활동을 열심히 전개하였다. NGO의 역할과 협력이 행사성공의 관건이 되고 있다.

언론의 협조와 지원 또한 성공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신문, 방송 등 모든 언론기관이 엑스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지방에서 세계적인 행사를 치루는데 언론이 앞장서야 한다는 자세로 열심히 홍보하고 도와준 것이 이번 행사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신라 천년의 고도 경주에서 시작한 문화엑스포가 세 번째 행사에 성공을 거두고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문화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에 성공했다고 자만하지 말고 겸허한 마음으로 새로운 아이টে를 개발하고 고객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지지층을 계속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종합 문화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세계적인 문화명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본다. 이번 엑스포를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엑스포를 계속 사랑해주길 기원하는 바이다. 



짧은 상식, 긴 여운

유비쿼터스 세상

Ubiquitous

인터넷, 모바일 컴퓨팅 등 정보혁명을 가져왔던 정보통신 기술이 가공할 만한 세상을 준비하고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란 수식어와 함께 '미래사회는 유비쿼터스로 간다'는 발언이 쏟아진다. 첨단과학 영화에서 '악방의 감초'처럼 그려지는 미래 생활상을 유심히 살펴본 사람이라면 유비쿼터스 세계의 화려한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유비쿼터스(Ubiquitous)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의미다. 1988년 미국의 마크 와이저 박사가 '어디에서든지 컴퓨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세계'를 지칭하는 말로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현재는 기업은 물론 정부도 유비쿼터스 요소기술 개발에 사활을 건 듯한 인상이다. 여기에는 표정, 제스처, 음성, 신체변화 인식 등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 기술과 데이터 저장, 유무선 네트워킹 기술 등이 포함된다.

유비쿼터스 세상을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과 맞먹는 제4의 혁명이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 유비쿼터스 세상이 되면 가장 먼저 가정 생활이 바뀐다. 모든 정보가 그물망처럼 얽혀있는 네트워크를 타고 공유되기 때문에 사람은 가정내에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 자신의 집과 집안의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다. 인터넷에 연결된 전자레인지가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조리법을 검색해 요리한다거나, 냉장고에 내장된 컴퓨터가 야채, 과일 양을 파악해 자동으로 주문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인공위성과 연결된 휴대전화가 가장 빠른 길을 알려주며, 무심코 지나치는 거리의 광고 전광판에서 당신의 취향을 고려한 제품 광고가 흐르는 것도 유비쿼터스 세상의 한 단면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네트워크로 공유된 개인 정보를 바탕으로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한 예로, 최근 한 이동통신 서비스사(社)는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을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 등에 설치된 프린터에서 바로 받아볼 수 있는 유비쿼터스 프린팅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다. 향후에는 개인 문서부터 회사 자료, 정부의 각종 민원서류까지 출력할 수 있다고 한다. 국가 차원에서는 도로, 공원, 교량 관리에 유비쿼터스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물론, 행정, 금융, 치안, 복지 등의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어느 누구나 편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유토피아' 유비쿼터스 세상에 대한 높은 기대 만큼이나 우려의 시각도 크다. 개인의 모든 일상이 기록되고 감시되기 때문에 생기는 프라이버시 침해도 문제되지만, 크래킹에 의한 정보 유출, 바이러스 유포, 각종 컴퓨터 범죄, 저작권 침해 등 가상세계에서 벌어지는 각종 부작용이 인간의 삶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

유비쿼터스 세상의 편리함과 감시, 통제 가능성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현재 우리가 만끽하는 정보혁명 시대는 물론, 제1, 2혁명의 시기에도 어둠은 있었다. 예측 가능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인류의 지혜가 필요할 때다. <출처: <http://scent.kisti.re.kr>> 



김영주
前 계명문화대학 교수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시체제 운영 등 사회적인 뒷받침이 요구

☞ 이번 대구 하계U대회가 가장 성공한 대회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자원봉사자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회의 자원봉사자로서 직접 활동하신 교수님께서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이 인터뷰에 저를 불러주신 산학경영기술연구원측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U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게 된 데는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83년부터 대구·경북 혼혈아협회에서 봉사해 왔습니다. 그 당시 만해도 우리 나라 특히, 대구사회에서는 자원봉사란 말이 꼭 생소한 때였습니다. 제가 혼혈아협회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제행사의 연회장에서 자금관리를 맡고 있었는데 그곳에 참석한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보자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교수가 왜 여기서 일을 하느냐고 하면서 못 마땅해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2 월드컵대회나 2003 대구 하계U대회를 통해서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것을 실감했습니다. 지난 2월 28일에 경북대학교에서 자원봉사자를 위한 제1차 소양교육이 있었을 때에도 예상밖의 많은 인원이 참석한데 대해서 준비위원회측에서 매우 만족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자원봉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며 봉사하는 기쁨도 누릴 줄 아는 것 같습니다.

☞ 2002 월드컵, 대구지하철 참사, 대구 하계U대회, 태풍 매미 등 최근 잇따른 행사나 재난 때마다 발벗고 나선 대구시민들의 자원봉사 열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02 월드컵대회와 2003 대구 하계U대회 때의 자원봉사를 대구지역뿐만 아니



라 국가차원이나 국제적차원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의 상시체제 운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힘들겠지만 각 전문분야나 지역별로 자원봉사자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뒷받침이 요구됩니다.

☞ 대구시는 10월 10일부터 3일간 “참여와 봉사, 나눔과 화합”이란 구호 아래 『2003 대구자원봉사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박람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며 참여를 하셨는지요. 그리고 외국의 자원봉사의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10월 10일 대구 자원봉사박람회에는 개인적인 일로 서울에 가 있어서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 외국의 자원봉사는 어느 특정 행사에만 이루어지지 않고 평소에 공동체 형태로 마을이나 직장에서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으며 연간계획에 따라 활동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대구의 주한미군 제20지원 사령부에서는 매년 봉사자의 날에 각 단체의 봉사자들을 위해 연회도 베풀어 주고 기념품도 증정하며 봉사시간을 감안해서 표창도 해오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행정당국에서도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여겨 집니다.


☞ 이번 대구 하계U대회에서는 제자들과 함께 자원봉사를 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셨고 기억에 남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대구 하계U대회에 앞서 우리대학 동아리인 Global Citizen은 2002와 2003 대구약령축제 때 외국인에게 영어통역 봉사를 했습니다. 2002 월드컵때에는 동대구역에서 구내 영어방송 및 대구를 찾은 영어권 국가의 선수들과 방문객들을 위한 경기장 안내, 교통편 안내, 호텔 및 식당 안내를 했기 때문에 이번 2003 대구 하계U대회 때에도 동대구역에서 같은 봉사를 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일로는 대구를 찾은 일본 관광객이 생각합니다. 일본 관광객은 영어가 서툴렀고 우리 학생은 영어가 서툴렀기 때문에 영어와 일어, 급기야 손짓까지 동원한 한참 후에야 일본 관광객들을 택시로 안내했던 기억이 납니다. 옆에서 지켜보면서 “궁하면 통한다”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 얼마전 계명문화대학을 정년 퇴임을 하시면서 많은 금액을 장학금으로 기탁하셨고 천여 권의 도서를 기증하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러한 일을 하셨는지요.

장학금 얘기를 하시니 송구스럽습니다. 평소 나는 우리 대학과 우리 제자들이 나에게 긍지를 갖게 해주었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20여 년 간 몸 담아온 대학을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무언가 조그만 것을 남기고 싶었을 뿐입니다.

☞ 산학경영기술연구원 전회원을 대표해서 교수님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원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 2003년 대구 하계U대회를 치르는 동안 봉사활동을 한 대구시민이 많이 있는데도 체계 인터뷰 기회를 주신 산학경영기술연구원 전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대 담 : 조정일 산학경영기술연구원 연구원
- 일 시 : 2003년 10월 23일(목) 14:30
- 장 소 : 산학경영기술연구원 사무국



제161차 월례세미나 개최

지난 9월 26일(금)~27일(토) 전라남도 광주에서 (사)한국산학협동연구원과 공동으로 본원 제161차 월례세미나를 겸한 「제1회 영·호남 산학협동 교류행사」를 가졌다. 이 가운데 26일(금) 14:00~16:00까지 광주 영주체육관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중소기업 육성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유창무 중소기업청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장석주 대불대 교수(광주학계), 고정주 나영산업(주) 대표이사(광주업계), 김성진 광주매일 상무이사(광주유관), 최용호 경북대 교수(대구학계), 최한용 (주)마이돈닷컴 대표이사(대구업계), 장병철 고려관세사법인 대표관세사(대구유관)의 토론이 있었다. 그 외 「제4회 광주·전남산업기술박람회 2003」 및 한국광기술원 견학, 심청축제장(자연생태공원) 및 섬진강자연학습원 답사, 곡성군청 방문, 전남대학교 캠퍼스 Tour를 하였다.



제136차 이토회 개최

지난 10월 11일(토) 오후 3시 앞산에서 제136차 이토회를 가졌다.





회원동정



■ 권상장

권상장 계명대학교 경제통상대학 교수 (한국선물포럼 회장)는 10월 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동북아 금융 HUB: 파생상품시장의 가능성"에 관해 특강

• 10월 10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2층 강당에서 한국선물협회와 한국선물거래소 공동으로 "2003 선물심포지엄" 개최



■ 권상진

권상진 (주)고려주택 대표이사는 9월 30일 제8대 한국BBS대구시 연맹회장에 선임



■ 김규택

김규택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은 10월 7일 수성못 체육공원에서 개최된 제25회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식에 참석, 관련단체 500여 명의 회원들과 함께 자연정화활동을 펼침



■ 김동구

김동구 (주)금복주 대표이사는 10월 6일 대구·경북 소재 166개 고등학교 3/4분기 장학금 4천600만원을 전달



■ 김상무

김상무 계명대학교 교수는 9월 26일 서울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 볼룸에서 열린 제30회 관광의 날 기념식에서 관광진흥유공자로 선정되어 대통령표창을 받음



■ 김석진

김석진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9월 27일~29일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협의)회 제3차 임시총회 및 워크샵 참석차 금강산 육로 방문

• 10월 11일 한국증권학회 2003년도 제4차 정기학술발표회에서 "은행관계가 기업의 자금 융성과 차입금리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 발표

• 『경영의 이해』, 삼영사(2판) 발간, 2003. 8.
• 경북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발간 경상논집 제31권 1호 (2003. 8)에 "온라인투자자의 투자행태에 대한 비교 분석"이라는 논문 발간



■ 김주훈

김주훈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장은 9월 19일 청소년 경제교육 교재 「위풍당당 청소년의 야무진 경제생활」 발간



■ 남성희

남성희 대구보건대학장은 9월 29일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부인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전통문화의식함양을 위한 여성의 역할」이란 주제로 특강



■ 박인호

박인호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사무실 이전
• 주소 : 부산시 중구 동광동 1가 1번지 부산데파트 313호

• 전화 : 051)257-1196, 257-1186
• 팩스 : 051)257-2186



■ 배수진

배수진 계명문화대학 경영과 교수는 10월 1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경영기술지원단」 제2분과위원장(자문요원)으로 위촉

• 13일 수성구청 회의실에서 열린 「제77차 민원 배심회의」에 참석
• 24일 청송군 문화재 행사에 학계대표로 참석
• 31일 서울전경련 회관에서 개최된 「2003년 한국인사관리학회 이사회」에 참석
• 11월 1일 경희대학교에서 개최된 「2003년 한국기업경영학회 이사회」에 참석



■ 서정렬

서정렬 정우경영컨설팅그룹(주) 대표는 2003년 정보통신중소기업 경영진단, 지도실시



회원동정

(실시기간 : 2003년 10월~12월, 지원사항 : 컨설팅비용 80%지원사업)

- 2003년 정책자금 사후관리 실태조사기관 지정(실시기간 : 2003년 10월중, 실시대상 : 중소기업정책자금 사용업체)
- 2003년 정책자금 사후관리 실태조사 실시 참여(2003년 10월 2일~10월31일, 주관: 중소기업청)
- 2003년 경영효율화 지원사업 경영컨설팅 실시 참여 (2003년 10월20일~10월30일, 주관: 정보통신부)



■ 서정해

서정해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10월 11일 산업자원부 '지역전략산업 정책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 피선(참여정부의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총괄적 정책평가 업무를 수행함)



■ 신인수

신인수 상지대학교 교수는 한국중소기업학회 2003년 추계학술세미나에서 사회
• 한국상업교육학회 2003년도 부회장으로 위촉

- 학술단체 논문게재 : "강원지역 서비스산업의 육성방안", "무역과 환경에 관한 연구"



■ 심상철

심상철 대한화학회 회장(경북대학교 공업화학과 교수)은 10월 16일 부산 BEXCO에서 열린 제92회 추계 대한화학회 총회 및 해외 석학 등의 논문발표 학술회의에 참석



■ 우철구

우철구 영남대학교 정책학부 교수는 10월 1일~3일 프랑스 국제관계 연구소와 프랑스 외무부가 공동 주최하는 「유럽과 아시아」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동아시아에서의 지역협력증진」 발표



■ 윤진

윤진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은 10월 21일 재경부를 방문, 김광림 재경부 차관을 만나 서구가 주택특기지역으로 지정된 것에 대한 부당함을 설명하고 해제를 요구



■ 이기부

이기부 영남이공대학 토목공학과 교수는 9월 25일 교육원 연수관에서 지방건설공무원을 대상으로, 10월 6일 영남건설기술원에서 건설기술인 1급, 2급을 대상으로 GPS(인공위성)와 CM(건설사업관리전문가) 교육에 관해 특강



■ 이성희

이성희 前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이사는 (사)한국경영기술컨설팅협회 상근 부회장으로 취임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8 허바허바빌딩 4층

- 전화 : 02)569-8121~3

- 팩스 : 02)569-8124



■ 이양자

이양자 대구지역노인대학연합회 회장은 10월 10일 대구체육관에서 제5회 대구지역 노인대학연합회 체육대회 개최



■ 이영세

이영세 대구사이버대학교 총장은 10월 15일 미국의 노버대학(대학원장: 싱글턴 박사)과 온라인 대학원석사과정 공동개설을 위한 의향서 협정식을 가짐. 온라인 대학원은 대구사이버대학교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미국 노버대학의 대학원의 수업을 들으며 소정 이수과목을 수료하면 노버대학교의 석사학위가 수여되며, 학생 모집은 2004년 신학기부터 시작함



회원동정



■ 이인중

이인중 화성산업(주)동아백화점 대표
이사는 10월 14일 동아스포츠센터 연
회장에서 차장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
로 차세대 성장엔진 개발과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관한 워크샵을 개최



■ 이종준

이종준 계명문화대학 경영과 교수(계
명문화대학 평생교육원 원장)는 이번
학기 대구·경북지역에서 유일하게
계명문화대학 평생교육원에 원예치료
사 과정을 개설하여 성공적으로 운영
해 오던 중 지난 9월 30일 한국 원예치료협회 회장 손기철
(건국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 원예과학과) 교수님을 초청
"새로운 원예와 원예치료의 필요성"이란 주제로 특강을 가졌
으며 25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룸



■ 이태진

이태진 영남대학교 응용화학공학부
교수는 「2003 산업기술진흥유공자」
로 선정돼 10월 17일 서울 코엑스 4
층 대회의실에서 대통령표창을 받음



■ 이현희

이현희 대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공로로 10월 27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고건 국무총리로부터 국민훈장 동백
장을 받음



■ 이훈

이훈 (주)e-SIS 대표이사는 한국패션
센터(FCK) 4차 패션정보실 정보화구
축사업에서 휴먼드림과 함께 삼성
SDS컨소시엄으로 참가해 e-
Marketing 시스템 공급업체로 선정,
이 사업은 2002년 11월부터 국내 섬유/패션산업의 대내외
적 경쟁력 및 마케팅 역량강화를 위해 한국패션센터에서 추
진중인 프로젝트로 (주)e-SIS는 고품격 전자카탈로그 제작
및 e-Marketing 시스템 공급을 지원하게 됨



■ 조재룡

조재룡 (주)한국중소기업컨설팅 대표
이사는 9월 26일 대구·경북 지방중
소기업청 주최의 「2003년 대구·경
북 창업로드쇼」에 참가
• 24일~27일까지 개최된 2003년
국제 중소기업 이업종교류회 심포지엄에 참가
• 10월 9일~12일 중국 진저우(錦州:금주)시 경제무역상담
회에 참가



■ 황대현

황대현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은 9월
5일 달서구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사회복지의 날 기념간담회에 참석, 유
공자 표창 및 관계자 격려
• 10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달
서발전협의회 회의에 참석,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
• 20일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제12회 국제휠체어 마라
톤대회 개막식에 참석하여 관계자 및 참석자들을 격려



■ 김극년(본원 고문)

김극년 본원 고문(대구은행장)은 10
월 7일 경북도청을 방문, 이의근 도지
사에게 경북체육회 진흥기금 2천만원
을 전달
• 10일 전주의 전북은행 본점에서 열
린 「지방은행협의회」에 참석한 후 전주 전국체전에 참가할
대구은행 체조팀과 여자연식정구팀의 훈련장을 방문, 선수들
을 격려



■ 신일희(본원 고문)

신일희 본원 고문((사)한국사랑의집
짓기운동연합회 대구경북지회 이사
장, 계명대학교 총장)은 10월 18일
EXCO에서 사랑의 집짓기 후원 패션
쇼를 디자이너 김선자 씨 초청 디너쇼
로 가짐



회원동정



■ 이상천(본원 고문)

이상천 본원 고문(영남대학교 총장)은 10월 8일 중국 화중(華中) 사범대학이 개교 100주년 기념으로 주최하는 「2003 세계대학총장 포럼」에 참석, 「21세기 문화고등교육과 국제협력」에

대해 주제 발표



■ 조해녕(본원 고문)

조해녕 본원 고문(안전문화추진 대구 시지역협의회장, 대구광역시장)은 10월 15일 25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올해 안전문화추진 성과, 안전문화대상 시상 등에 대해

논의

• 24일 EXCO에서 열린 「대한토목학회 대구학술대회 및 시빌 엑스포」에 참석, 축사를 한 뒤 「낙동강 프로젝트 추진 방향」이란 제목으로 특별강연



■ 최용호(본원 명예원장)

최용호 본원 명예원장(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은 9월 5일 중소기업청이 주관한 「중소기업 장기발전 비전과 육성전략」연구자문단 간담회에 참석

• 대구·경북지방자치학회가 주최한 「차등적 지방분권과 지방정부의 대응전략」세미나에서 토론

• 10월 2일 지역발전포럼이 주최한 「국가균형발전전략과 국제경쟁력강화방안」포럼에서 토론



■ 최만기(본원 원장)

최만기 본원 원장(계명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은 Global MBA에 관한 협의를 위해 9월 29일부터 10월 3일 사이에 중국 길림대학을 방문



■ 구정모(본원 부이사장)

구정모 본원 부이사장((주)대구백화점 대표이사)은 9월 30일 대구시 재해대책본부에 수재민돕기 행사 매출 일부분과 백화점 직원들로부터 모금한 수재의연금 2천만원을

축하합니다

• 정남진 우리기업(주) 상무이사 장남 결혼 : 2003년 9월 27일(토) 오후 1시 서울 센츨리티 밀레니엄홀 6층



단행본 및 연구보고서

- 산업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재단, "2003 테크노포럼21 기술인력 포럼-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을 구현하기 위한 인재 양성 방안", 2003. 9. 24
- 삼성경제연구소, "기술과 감성의 융합 시대-상품 트렌드와 선도기업들의 대응", 2003. 9. 17
- 삼성경제연구소, "외국기업 유치 부진과 反轉의 해법", 2003. 10. 1
- 삼성경제연구소, "세계 환율갈등의 배경과 그 영향", 2003. 10. 8
- 삼성경제연구소, "일본 제조기업 부활의 교훈", 2003. 10. 15
- 한국금융연구원, "기업 지배구조와 금융기관의 역할", 2003. 9. 25
- 한국금융연구원, "디지털 금융의 이해", 2003. 9
-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2003. 9
-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2002년도 금융정보화 추진현황", 2003. 8

정기간행물

- 경북대학교 테크노파크, "경북대학교 테크노파크 소식지", 제17호
- 금융결제원,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2003. 9
-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달서", 2003. 10
- 대구상공회의소, "대구상의", 2003. 9 · 10
-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DYETEC VISION", 2003. 9 · 10
- 대구은행, "대은행리뷰", 2003. 7 · 8
- 대구은행, "향토와 문화27", 2003. 7. 31
- 대구테크노파크, "테크노폴리스", 2003. 9
- 산학연융합센터, "산학정21", 2003. 10. 5
- 서울경제, "POPULAR science", 2003. 10
- 신용보증기금, "보증월보9", 2003. 9
- 열린전북, "열린전북", 2003. 10
-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OECD Focus", 2003. 9
-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 2003. 9
-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 2003. 10
- 좋은 이웃집, "경제풍월", 2003. 10
- 증권거래소, "주식", 2003. 9
- 증권거래소, "주식", 2003. 10
- 한국무역협회, "무역", 2003. 10
- 한국발전연구원, "한국발전 리뷰", 2003. 10
- 한국산업기술재단, "KOTEF news", 2003. 10
- 한국산업기술재단, "KOTEF 저널", 2003. 가을호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기협 기술관리", 2003. 10
-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훈련정보", 2003. 가을호
- 한국산업정보센터, "레이저기술", 2003. 10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장", 2003. 9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장", 2003. 10
- 한국선물거래소, "선물시정리뷰", 2003. 8
- 한국수출입은행, "수는 해외경제", 2003. 9
- 한국수출입은행, "수는 해외경제", 2003. 10
-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대구 · 경북지역 경제동향", 2003. 8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2003. 9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과 인력개발", 2003. 8
- (주)푸드웰, "가실", 2003. 9 · 10
- (주)효성, "토포론 섬유", 2003. 9 · 10

연구원 소개 및 회원가입 안내

■ 연혁 및 현황

1990년 6월 지역의 학계 교수, 기업체 경영자, 기관 단체 장이 산학협동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일조하자는 순수한 취지로 산업자원부의 사단법인 설립인가를 받아 창립하였으며, 현재 46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이사장 : 정성진 국민대학교 총장
- 원 장 : 최만기 계명대학교 교수

■ 주요사업

- 산학협동 세미나 개최
- 산업시찰 실시
- 산학리뷰 발간
- 조사분석, 기술개발 연구
- 각종 개발계획 수립 등 연구용역 수행
- 경영자 및 임직원의 교육훈련
- 회원친선 교류사업

■ 회원가입 자격 및 회비

- 학계회원 : 국내외 학계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입회비 5만원, 연회비 7만원)
- 업계회원 : 기업체의 최고경영자 및 임원
(연회비 80만원)
- 유관기관회원 : 금융기관,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장
(연회비 80만원)
- 유관개인회원 :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임원으로서 개인자격(입회비 5만원, 연회비 15만원)
- 영구회원 : 회비 일시납부 회원
(개인 100만원, 기관 1000만원)

■ 연구원 거래은행 계좌

- 대구은행 : 018 - 04 - 304943 - 001
- 예 금 주 : (사)산학경영기술연구원

- 본 연구원에 납부 또는 지원하시는 회비, 연구비 그리고 출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1항 1호에 의거, 지정 기부금으로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원고 및 광고게재 신청

매월 3,000여 부를 제작·배포하는 본 산학리뷰지는 회원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적극적인 원고 기고 및 광고게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연구원 사무국 T.(053)959-2861~2)

■ 2003년 10월호 (통권 150호)

- 간 별 : 월간
- 등 록 번 호 : 대구리01089
- 등 록 일 : 1998년 6월 2일
- 발 행 소 : (사)산학경영기술연구원
- 발 행 일 : 2003년 10월 30일
- 발 행 인 : 정성진 (국민대 총장)
- 편집위원장 : 정인상 (경북대 교수)
한성덕 (대구대 교수)
- 편 집 위 원 : 김능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대구경북지원장)
김영재 (동국대 교수)
김용준 (영남이공대 교수)
박규진 ((주)애드밸리 대표이사)
박진항 ((주)멀티애드메이저 대표이사)
이동형 (영남법무법인 변호사)
황남성 (영남이공대 교수)
조정일 · 임재현 · 최영애 (상임연구원)
- 기획·편집 : (주)멀티애드메이저(053-751-5005)



韓國 産學經營技術研究院
UNIVERSITY-INDUSTRY RESEARCH INSTITUTE

701-814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3동 164-1번지
TEL. (053)959-2861~2 FAX. (053)959-2860
http://www.uri.or.kr
e-mail : uri@uri.or.kr

사이버 교육을 선도하는 대학

성 덕 대 학

모 집 학 과

모집계열 및 학과	정원	연 락 처
만화애니메이션 & 디자인과	80	016-505-4767
사회복지과	205	011-9595-2580
호텔관광마케팅과	80	011-447-3567
경찰경호행정과	80	018-249-9331
스포츠당구과	30	017-501-5617
호텔외식조리계열	80	017-505-8021
음악계열	80	011-802-3427
레저스포츠계열	130	016-9551-5754
유아교육과(3년제)	40	011-9590-2580
작업치료과(3년제)	30	018-510-5001
안경광학과(3년제)	40	018-510-5001

입 시 안 내

▶ 수시모집 전형일정(일반·특별·정원의 전형)

- 2003. 11. 10(월) ~ 11. 21(금)

▶ 원서교부 및 접수방법

- 원서교부처 : 전국 각지 유명서점

- 전 화 접 수 : 080-320-8800, 080-380-8800

- 팩 스 접 수 : 054-330-8810

- 인터넷접수 : www.sd-c.ac.kr

5년연속 교육인적자원부 선정 우수대학

특별장학금·기숙사장학금외 27종의 다양한 장학혜택

최신 실험실습기자재와 특성화된 교과과정

대구·경주·포항·울산·무료 스쿨버스 운행, 수도권 왕복스쿨버스 운행

일본, 중국 등의 해외봉사활동 및 체험활동

취업·편입 100%를 지향하는 평생A/S 교육프로그램 운영대학



앞선 안목과 교육으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성덕대학

입시 문의

080-320-8800

080-380-8800